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 - 한미FTA 관련 뉴스 사례분석

김 기 영
(부산대)

1. 서론

2008년 4월 29일, MBC 방송의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것은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쇠고기와 자동차 관련 사안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었다.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결국 이 날 방송은 FTA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던 한미FTA에 대한 주요 내러티브, 즉 스토리는 ‘강대국인 미국이 힘을 이용해 우리의 시장과 주권,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려한다’ 는 것이었다. PD

수첩의 방송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나 사회가 가진 이데올로기는 뉴스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와 뉴스 담화에 대해 연구했던 반 다이크(Teun A. van Dijk)는 국가나 언론사가 가진 이데올로기에 따라 뉴스 제작자들의 견해가 형성되고 그들의 견해는 뉴스 기사의 담화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역설했다(1995: 254-6, 1998: 21). 국제 뉴스의 번역을 뉴스 생산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번역된 뉴스 역시 해당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라면, 사회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공유된 스토리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미시적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 내러티브가 관련 뉴스 번역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알아보고, 자국 내러티브에 부합해 이루어지는 뉴스 생산을 ‘현지화(localization)’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내러티브의 개념은 소머스와 김슨(Somers and Gibson 1994)의 것을 토대로 했고, 이를 번역의 실제와 이론에 적용해 발전시킨 모나 베이커의 연구(Mona Baker 2006)를 참고했다.

한미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다. 2006년 2월 공식 협상을 시작해 2007년 4월 합의 내용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에서 한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여론이 미국 의회 안팎에서 팽배해지자 미국 정부는 추가협상 내지는 분야별 개별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려는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촛불시위로 반대의 뜻을 밝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바 있다.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마무리될 시점에서 미국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문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다. 우리 국회에서는 2011년 11월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언론의 한미FTA관련 뉴스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는 것은 국제 뉴스가 대립된 입장을 가진 국가에서 수용되기 위해 어떻게 번역되고 개작, 조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뉴스 번역에서 일어나는 편집, 개작, 조작 현상을 현지화(localization)로 아우르고, 양국의 상반된 내러티브가 번역과 ‘현지화’ 과정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내러티브와 프레임

2.1 사회적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원래 문학에서 사용되어온 개념이다. 우리말의 ‘이야기’, ‘서사’로 번역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내러티브는 ‘사회적 내러티브’다. 문학이나 언어학에서 다루는 개별적인 상황이나 작품의 내적구조를 의미하는 임의적(optional) 내러티브가 아닌, 모든 양식(mode)의 소통을 아우르고 그 근간이 되는 메타 코드(meta-code)로서의 내러티브, 다시 말해 우리의 경험을 규정하는 필연적인 원칙, 양식으로서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다(Baker 2006: 9).

사회내러티브이론(Socio-narrative Theory)은 이야기(narrative)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소머스와 김슨(Somers and Gibson)은 사람들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내러티브를 존재론적 내러티브(ontological narrative), 사회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 개념적 내러티브(conceptual, disciplinary narrative),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의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내러티브의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했다(1994: 38).

1. 존재론적 내러티브: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개인사에 대해 스스로에게 해주는 이야기. 개인사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와 집단적(collective) 내러티브의 영향을 받는다.
2. 사회적 내러티브): 사회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내러티브. 예) 9.11참사, 서구 민주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등 (집단적 내러티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집단적 내러티브는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내러티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개념적 내러티브: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이나 설명, 특정 인종, 사회집단에 대해 규정하는 표현이나 개념 설명. 예)무례, 야만에 대한 개념. 백인우월주의, 자연도태설, 진화론.

1) 본 연구는 한미FTA에 대한 ‘한미 양국의 사회적 내러티브’에 기초하고 있다.

4. 메타 내러티브: 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 내러티브. 예) 계몽, 진보, 산업화, 세계화.

내러티브가 가진 특성은 다음과 같다(ibid.).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이 특성들은 내러티브가 번역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근거와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1. 일시성(temporality):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 관계, 등장인물들이 순차적으로 특정 순간과 공간에서 등장하여 이야기를 꾸려간다. 순서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제약과 의미의 해석을 결정한다. 따라서 모든 내러티브에는 역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성(relationality): 여러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내러티브의 결속성(coherence)이 결정된다.
3. 인과적 스토리라인(causal emplotment): 각각의 사건이 가진 중요성이 시간적 순서와 범주의 규칙을 뛰어넘는다. 원인과 결과의 구성이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4. 선택성(selective appropriation): 내러티브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판단에 의해 선택된 일부의 사건으로만 구성된다. 결속성 있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위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내러티브가 중립적이고 정확한 사실의 서술이라기보다 특정한 입장에 따라 선택, 편집된, 결속성 있는 스토리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중 먼저 공격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 어떤 내러티브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나 정부에 대한 윤리성과 도덕성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베이커는 소머스(1992, 1994, 1997), 소머스와 김순(1994)의 내러티브 이론을 번역학에 도입해 첨예한 군사적, 정치적 대결 상황 속에서 내러티브의 차이가 번역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2.2 번역에서 작동하는 내러티브와 프레임

국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나 군사적 충돌과 관련된 뉴스의 번역은 번역자가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번역어의 선택이 번역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해당 사회가 취하는 입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문에 “Sea of Japan”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동해”라고 번역한다. 또 프랑스와 영국이 가지고 있던 수에즈운하의 운영권을 이집트가 국유화한 사건을 서방에서는 “The Suez Canal Crisis”라고 하지만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The Handover of Sovereignty”로 표현한다. 이 경우 번역은 등가를 찾는 행위도, 추상적 규범을 실천하는 과정도 아니다. 번역자 역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의 일부,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Baker 2007: 153). 위의 예들은 상반된 내러티브가 각기 다른 명명법을 통해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프레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베이커는 방송보도나 신문기사에서 이미지, 캡션, 제목의 조작을 통해 내러티브가 프레임 되고, 책 번역에서는 표지, 소개, 서문, 각주, 광고문 등의 결텍스트(paratext)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번역시 의도적으로 텍스트의 제목이나 명명법을 바꾸어 원문과 다른 프레임링을 시도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는 첨예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 상황을 해석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자지구의 콘크리트 벽을 “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스라엘 측의 주장)”이라고 명명할 지 “비인도적인 봉쇄(팔레스타인 측의 주장)”라고 칭할지는 번역자가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어떤 번역어를 선택해 뉴스를 프레임하느냐에 달려있다.

2.3 한미FTA의 사회적 내러티브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우방이다. 정치적 갈등이나 폭력사태를 상반되게 해석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립했던 이슈이다. 한미 양국의 내러티브 대립과 내러티브에 따른 번역 전략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안이 될 것이다. 언론 기사나 사건을 통해 표

현된 양국의 사회적 내러티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미FTA에 대한 양국의 사회적 내러티브

	한 국	미 국
사회적 내러티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미 FTA협상은 주권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 → 쟁점 현안 중 쇠고기 문제가 가장 이슈화됨 →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어짐 2. 미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특히 쇠고기, 자동차 부분에서 불공정한 합의를 압박하고 있음 → 국가적 자존심, 주권의 손상 3. 정부의 지나친 친미성향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이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쇠고기 수입 재개, 천안함 피폭 직후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 수용한 점이 이를 뒷받침) 4. 협정문 오역 사건으로 불신증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조합, 민주당의 FTA 반대 압력 - 자동차 문제 쟁점화 (2007년 기준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 53,390대, 한국이 수입한 자동차 6,235대로 극심한 불균형 보임) 2. 한국의 보호주의 무역은 비난받아 마땅함 3. 기존 합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하므로 쇠고기 개방하고 자동차 부문에선 미국차에 대한 수입 조건 완화가 필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진 전략적 외교적 가치를 고려해, 또한 실업률과 수출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FTA는 타결 되어야 함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내러티브는 재협상 반대와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미국의 내러티브는 FTA 비준지연과 재협상 요구로 표출되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의 1번 내러티브를 선택해 노동자들과 민주당원들의 표심을 모았지만 취임 후에는 경제회복과 실업률 제고를 위해 4번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 미국이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상품 인정문제 등이다. 본 연구는 양국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쇠고기와 자동차로 소재를 한정하고자 한다.

3. 텍스트 수집과 분석

분석에 사용된 원문 텍스트(ST)는 민주당과 미국 노동계의 입장을 비교적 강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한미 FTA 관련 기사들이다. 원문의 수집방법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기사검색을 활용했고 기간은 협상안이 공개되었던 2007년 4월부터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던 2011년 11월 까지다. 분석에 사용된 번역 텍스트(TT)는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NYT, 뉴욕타임스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수집된 해당 번역 기사들이다. 수집된 원문-번역문은 총 30쌍이다. 표제나 부제, 리드에서 해당 기사가 뉴욕타임을 번역한 내용임을 명확히 하는 기사들 중 쇠고기, 자동차, 재협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8쌍의 기사를 선별해 데이터로 활용했다. 다른 언론사 기사나 번역자 해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료로 채택했다(ST3의 경우 예외적으로 번역 방법이나 내용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 두 개의 번역문 TT3과 TT3'를 모두 활용했다. TT3은 ST3의 번역문으로 본문 분석과 통계에 모두 사용되었고 TT3'은 본문 분석에만 사용했다).

한국어 기사에서 번역문의 비중은 기사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경우에 따라 리드를 제외한 기사 전체가 인용 형식의 번역문인 경우도 있지만 번역자의 해설이나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번역문은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기사도 있다. 하나의 원문을 여러 언론사에서 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내용이나 분량에서 차이가 날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을 번역한 언론사의 기사를 데이터로 채택했다.

조사한 항목은 표제, 부표제, 리드, 내러티브 차이에 의한 본문 내 어휘조직, ST와 TT의 총 단락 수 비교, ST에서 번역된 내용, 번역에서 제외된 내용, TT에서 비번역 단락의 수와 성격, 번역된 부분과 번역자의 견해의 구분 (번역 문임을 알리는 표지, 즉 인용과 관련된 메타 담화의 사용 여부) 등이다. 분석의 단위는 단락이다. 대부분 하나의 단락이 주요내용 하나를 기술하며, 번역도 원문의 단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6줄 정도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 기사(TT)도 2-4줄 정도의 단락을 단위로 정보가 배열되어 있다.

번역된 단락 이외에 TT를 구성하고 있는 단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TT기사에서 번역을 제외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TT가 번역된 기사문 형식을 띄고 있는지, 인용 형식을 활용해 번역문을 전달하고 있는지, 번역문과 편역자의 해설, 분석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도 국제뉴스 번역 규범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고려되었다. 입장 차이나 내러티브의 차이로 인한 어휘조작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타 번역전략상 특기할 만한 사항도 염두에 두었다.

4. 분석 결과

4.1 종합

수집한 TT는 모두 “. . .”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와 같은 직접인용이나 “. . . 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의 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한 발췌 번역이었다. 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각기 다른 기사에서 취합한 종합보도의 형식을 보이는 사례도 있고(TT3'), 번역된 부분보다 덧붙여진 해설이나 분석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 번역된 기사가 한국어 기사문에 삽입된 듯 보이는 기사도 있다. 원문에 나타난 직접인용의 번역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유명인사의 말이나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는 기사체의 규범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강지혜 2008). 번역문을 제시하는 형식은 대부분 간접인용이었고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혼용된 경우는 TT1, TT6, TT7이다. TT1, TT3, TT4, TT7은 번역된 부분과 편역자의 주관 내지는 설명의 구분이 불분명했다.

우리말 기사문은 보통 표제와 부표제, 리드, 본문으로 구성된다. 리드는 본문의 제일 앞부분에서 기사의 요지를 추려서 쓴 짧은 문장이다. 표제, 부표제, 리드는 내러티브를 형성, 반영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주요 요소이다. 조사 결과, 모든 ST에 부표제와 리드가 없었지만 TT3를 제외한 대부분의 TT가 리드를 포함하고 있다. 부표제가 있는 것은 TT3, TT5, TT6, TT7이다(첨부1 참고).

ST는 6-31 단락 사이의 분량을 보였고 TT는 4-15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치는 ST가 17.6 단락, TT는 8.8 단락(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이다. 단락수를 기준으로 볼 때 TT는 ST의 약 절반에 머물렀다. 기사의 분량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사문 규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기사들은 주로 길이가 긴 분석기사이고 국내 언론사의 기사들은 대부분 인쇄하면 A4 용지 한 페이지를 넘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다.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평균 분량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신명선과 박재영 2004).

TT에서 번역된 단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퍼센트로 8.8 단락 중 7.4 단락이 번역문에 해당한다. 번역된 단락은 해당 ST를 번역한 경우만 포함했다. 비번역 단락은 대부분 리드에 해당했고 TT3', TT5, TT6에서는 다른 기사를 번역한 내용의 소개와 편역자가 덧붙인 해설, 설명이 비번역 단락을 구성했다.

TT의 표제는 ST의 표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원문의 표제를 무시하고 본문 중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표제를 뽑았다. 또 데이터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어휘 조사가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내러티브를 조성, 반영하고, 기사내용을 프레임하는 표제, 부표제, 리드에서 ST와 TT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2. TT 본문 중 대립되는 내러티브를 반영하는 용어 조사가 관찰되었다.
3. TT는 표제, 부표제에서부터 ST를 인용해 전함을 밝히고 있다.
4. TT는 본문에서 “-라고 NYT가 전했다” 는 형식의 발췌 인용 번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TT기사에서 ST를 번역한 부분은 약 84 퍼센트에 불과했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설명, 해설,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편역자의 개입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7. 단락을 기준으로 볼 때 TT의 분량은 ST의 절반에 해당한다.

4.2 표제, 부표제, 리드의 변화

TT의 표제는 ST의 표제와 내용과 강조점,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원문의 표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며 우리가 한미FTA에 대해 가진 내러티브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 부표제는 표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TT에서 나타났다. TT의 리드는 기사 전체를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외신기사의 번역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TT1에서는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다”는 ST1의 표제가 미국이 FTA타결에 적극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표제에서 이 기사가 NYT를 번역한 것임을 알리는 표지가 나타났고 ST에 없는 리드가 뒤따른다.

<예 1>

Negotiators Extend Deadline for South Korea Trade Fact (ST1)

→ “FTA연장, 美 협상타결 의지 크다”-NY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다음달 2일 오전 1시(한국시간)로 이를 연장된 것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부시 정부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TT1)

TT5에서는 원문의 표제 “미국이 갈림길에 섰다”는 내용이 오바마 대통령의 협정 진전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예 1>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FTA 협정 완결을 원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프레이밍 되고 있다.

<예 2>

U.S. Nears a Crossroads on Trade (ST5)

→ 오바마 “한국 등과 무역협정 진전시킬 것”

NYT “美 상원서 한미FTA 비준 모멘텀 징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청신호를 보내면서 미 상원이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조성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TT5)

TT3'의 표제에는 ST 표제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는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 한미FTA 쇠고기 관련 재협상이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합의라고 믿는 우리 언론과 국민의 사회적 내러티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 3>

An Anger in Korea Over More Than Beef (ST3)

→ “불공정 합의로 한국인 자존심 상처” NYT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촛불집회가 계속되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TT3)

TT4에서는 원문 표제에 없는 쇠고기와 자동차를 등장시켜 우리의 관심사를 부각시키고 있다.

<예 4>

When a Populist Stance Meets a Complex Issue(ST4)

→ NYT “쇠고기, 자동차 문제 오바마 주장처럼 간단치 않아”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외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얘 기할 때 일본과 특히 한국을 예로 들어 비판하지만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현실은 그의 주장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TT4)

4.3 어휘 조작

내러티브 차이에 의한 어휘조작은 TT1, TT3, TT3', TT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 5>의 TT1에서는 ST1의 “비난했다”를 “불만을 표했다”로 번역해 미국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를 약화시켜 표현했다. 또 <예 6>에서는 한국의 보호무역 관행을 원문에서는 “철의 장막”에 비유했지만 이를 “무역장벽”이라는 유표성 없는 표현으로 바꾸어 강도를 크게 완화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원문은 한국의 무역장벽을 철의 장막에 비유해 우리 무역 관행을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강대국에 대항해 우리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언론들은 원문의 내러티브에 저항해 이를 무역장벽이라는 평범한 용어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예 5>

Nancy Pelosi, and other senior Democrats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negotiating tactics, calling for “significant course correction” from a

“one-way street” in Seoul’s favor.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정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ST1)

→ “USTR이 제출하려는 합의안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TT1)

<예 6>

The proposed deal “is completely inadequate in the face of Korea’s longstanding iron curtain to American manufactured products,” especially United States cars, the letter said. (ST1)

→ 자동차 분야 등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오랜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USTR이 제출하려는 합의안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며, (ST1)

TT3에서는 시위대가 “벽/장애물이 등장하자”, 내지는 “벽에 맞서”에 해당하는 표현을 “‘명박산성’으로 불리는 대형 컨테이너가 광화문에 등장했을 때”로 바꾸어 번역했다. 정황을 살려 “wall”을 당시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에 설치되었던 “컨테이너”로 번역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원문에 없는 “명박산성으로 불리는”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한미FTA 반대 시위가 소통 부재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당시 정권에 대한 반발 내지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다. <표 1>에 제시된 내러티브 2번과 3번, 즉, 한미FTA는 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의 손상이라는 것, 또 이대통령이 지나친 친미성향을 보인다는 내러티브가 번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예 8>의 TT3에서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원문에 없는 “한국 모독 발언”이란 표현을 첨가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과 관련된 번역문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예 7>

Faced with the wall, people pasted identical leaflets on it, their message dramatically summarizing Mr. Lee’s image and alienation from many of his people: “This is a new border for our country. From here starts the U.S. state of South Korea.”(ST3)

→ 한국인들의 이 같은 정서는 지난 12일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는

대형 컨테이너가 광화문에 등장했을 때 “한국의 국경, 여기서부터 미국의 ‘한국주’가 시작된다”(This is a new border for our country. From here starts the U.S. state of South Korea)라는 항의문구가 내걸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TT3)

<예 8>

Alexander Vershbow,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in South Korea, got a taste of the simmering anti-American sentiment when he emphasized the safety of American beef last week. “We hope that Koreans will begin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science and about the facts of American beef,” he said.(ST3)

→ 타임스는 ‘한국인들은 과학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한국 모독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요즘 한국에는 두 명의 반미주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李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버시바우로, 그들의 행동과 말이 반미감정을 쌓이게 하고 있다’는 전상일 서강대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TT3)

TT3'에서는 간접인용 형식으로 번역문을 소개하면서 원문에 없는 내용을 삽입 했다. 정부와 미국의 합의에 “불공정”이라는 어휘를 넣어 한미 FTA가 정당성이 없다는 번역자의 입장을 나타냈고, 역시 원문에 없는 “저항의식”이라는 표현을 첨가해 불공정한 합의에 국민들이 정당한 이유로 반발한다는 내러티브를 조성하고 있다. “저항”이 한국 사회에서 가진 합의를 감안해 볼 때 언론사, 번역자, 독자들은 한미 FTA를 ‘강대국의 경제적 침탈’로 해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 9>

The chants showed that the demonstration was not merely about the president’s unpopular decision to lift an import ban on American beef. It also tapped into Korean pride. (ST3)

→ 정부와 미국의 불공정 합의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저항의식이라고 보도했다. (TT3)

TT5의 경우 원문에는 FTA 비준 지연과 관련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이 부분을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로 “쇠고기”를 첨가해 번역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조들이 한미FTA 반대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권 불안정이 야기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큰 반향과 중대성을 지닌다. 양국이 가진 내러티브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예 10>

The deals have languished over concerns about Korean restrictions on auto and appliance imports and worker rights in Colombia.(ST5)

→ 이들 협정이 한국의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 콜롬비아의 노동 권한 문제 등으로 그동안 시들해졌었고, (TT5)

4.4 번역(trans-editing)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가 제공하는 국제뉴스는 전역(全譯)이나 발췌역(拔萃譯), 편역(編譯)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문을 전역하는 경우는 2012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한국어판을 선보인 Wall Street Journal과 중앙일보의 CNN 한글뉴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국 관련 뉴스를 포함한 국제 뉴스를 제목이나 원문을 가감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번역한다. 이 외에도 민간 통신사인 뉴스스가 Reuter, AP 뉴스를 같은 방식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Newsweek 한국판은 표제와 단락 구분에서 편집이 개입되고 원문에 없는 부표제가 번역문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 전역으로 국제뉴스를 전하는 사례는 소수다. 대부분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들은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원문의 일부를 번역한 뒤 여기에 편역자의 해설과 관점을 더해 뉴스를 작성한다. 편역(trans-editing)은 편집과 번역의 결합어로 1989년 스테팅(Karen Stetting)이 도입한 용어다(송연석 2012: 60). 편역된 국제뉴스는 번역된 부분이 인용으로 처리되어 뚜렷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번역과 해설, 논평이 뒤섞일 때가 많다. <예 11>을 살펴보면 앞 문단은 번역문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두 번째 문단은 번역된 부분임에도 편역자의 설명이나 해설로 여겨지기 쉽다.

<예 11>

(전략)

신문은 또한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역시 상황은 오바마 진영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세기말 한국은 40만대 이상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5천675대(미국차는 739대)를 수입했지만 2003년 이후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거의 3배로 증가해 작년에는 5만3천390대에 달했고 이중 미국 자동차 빅3의 판매 대수는 6천235대로 점유율이 11.7%에 그쳐 5년 전의 16.3%보다 떨어졌다. (2008-06-15 연합뉴스)

그런데 국제뉴스의 번역에는 편역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양상이 나타난다. 기사체인 원문을 전달하는 데 인용형식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제와 부제, 혹은 리드에서 사용되는 인용 형식은 해당 기사가 번역된 것임을 알리는 표지의 역할을 한다.

<예 12>

ST1의 표제: Negotiators Extend Deadline for South Korea Trade Pact

TT1의 표제: “FTA연장, 美 협상타결 의지 크다”-NYT

TT1의 리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다음달 2일 오전 1시 (한국시간)로 이틀 연장된 것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부시 정부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뉴스의 번역 규범에 대한 연구는 편역, 자국화(domestication)의 개념 속에서 시도되었다. 강수정(2011)은 한국뉴스의 중국어 번역에서 일어나는 편역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뉴스 편역에 대한 중국 번역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했다.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 2004)은 편집, 변형되어 전달되는 국제뉴스도 번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연석(2012)은 영-한 뉴스번역의 규범을 탐구하면서 국제뉴스의 편역에서 이루어지는 “편역자의 관점 주입”이 투리의 번역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본 연구는 국제뉴스의 번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현지화

(localization)’개념을 통해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뉴스 현지화’는 소프트웨어가 현지화 되듯 뉴스 텍스트 역시 수용 사회에 맞게 각색, 내지는 조정(adaptation)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4.5 뉴스 현지화(News Localization)

영어로 작성된 국제뉴스가 한국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필수적으로 한국어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위 분석 사례가 보여주듯 대부분 원문이 완역되기 보다는 선별, 편집, 가감, 축약, 발췌되고, 여러 원문의 종합되어 인용의 형식으로 소개되거나, 간접 인용의 경우 번역된 부분과 편역자의 주관, 설명이 모호하게 뒤섞인 채 전달된다. 이것은 번역학에서 축적된 번역 전략이나 틀로 범주화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지화(localization)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용어로 다양한 양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목표 시장에 잘 맞추어 세밀히 다듬는 과정, 즉, 판매되고 소비되는 지역에 언어적, 문화적으로 제품을 적합화하는 작업이다(Mazur 2007, Munday 2012: 281 재인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번역을 현지화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현지화를 본격적으로 번역학에 도입한 학자는 앤서니 뎀(Anthony Pym 2004)이다. 그는 현지화를 번역(translation)과 유사하지만, 원문 보다 배포(distribution)와 소비에 무게중심을 둔 개념으로 보았다. 그의 제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뉴스 번역에 번역학의 전통적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뉴스 번역을 통해 번역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 있다고 주장한 바스넷(Bassnett 2004)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뉴스 현지화는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뉴스도 ‘상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20세기 초반 이후 뉴스의 상품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미디어 경제학자 로버트 피카드(R. G. Picard)는 오늘날의 뉴스는 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독자들의 관심이 곧 광고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 결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보다는 되도록 독자들의 기분을 맞추는 뉴스가 생산된다는 것이다(Picard 2004: 61, McManus 2009: 221 재인용). 또한 “뉴스는 독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과 대중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무 사이에 간혀 있다 (Hutchins Commission²⁾ 1947: 57, McManus 2009: 220 재인용)”는 허친스 위원회의 전언 역시 뉴스의 상업적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뉴스는 대중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인 동시에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언론사의 상품이다. 수용에 용이하며 널리 배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다.

2000년대 초반부터 수년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임지 한국어판은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서비스 기간이나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해외에서도 세계적 언론사의 자국어 서비스 사이트들이 오래 가지 못해 폐쇄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CNN 스페인어 사이트는 1997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2004년 9월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비슷한 시기 독일어 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폐쇄 이유는 유사하다. 이용자가 적다는 것과 번역 품질이 나쁘다는 독자들의 평가 때문이었다(Valdeon 2005b, Gambier 2006: 12 재인용). BBC 스페인어 뉴스(BBC Mundo)도 같은 길을 걸었다. 스페인어 텍스트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주관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독자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ibid.).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언론사 뉴스의 자국어 사이트가 독자들에게, 특히 번역과 관련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모두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뉴스 번역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위 사례들은 현지에 적합화 되지 못한 국제뉴스가 독자들에게 외면 받아왔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예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제뉴스 번역에 개입하는 전략들을 “현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미 FTA 협상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뉴스 현지화에 개입하는 자국의 사회적 내러티브를 고찰하였다. 뉴스 번역에 미치는 사회적 내러티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미 양국의 입장 대립이 있었던 쇠고기, 자동차 관련 뉴스를 수

2) 시카고대학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가 의장이 되었던 미국의 1940년대 언론대책 특별위원회.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집해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고, 표제, 부표제, 리드, 어휘 변이, 조작 등이 일어났는지 관찰했다. 분석결과 <표 1>의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내러티브가 TT의 표제, 리드, 어휘 변이, 조작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적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편역자의 번역 개입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차후 많은 데이터를 통한 폭 넓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사회적 내러티브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규범 규명이나 일반화가 시도되기를 희망한다. 또 뉴스 번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현지화 개념의 도입은 뉴스 번역의 전략과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더욱 확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FTA에 대한 양국의 사회적 내러티브를 제시함에 있어 객관화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분야에서 한미 FTA 담론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 현지화나 뉴스 번역에 관여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작”내지는 번역자, 편역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하나의 원문을 각기 다른 언론사가 어떤 내러티브에 기대어 번역했는지 관찰해보는 언론사별 성향에 따른 번역전략 비교도 흥미로운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김용진 (2003) 「신문 뉴스 인용문의 담화 기능: 미국 신문의 9-11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1(2): 19-42.
- 강수정 (2011)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 연구』 15(1): 1-27.
-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2008b)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번역학연구』 9(4): 7-40.

- 송연석 (2012) 「뉴스 번역의 편역 규범 -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59-81.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3): 80-104.
- 신명선, 박재영 (2004) 『신문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이영희 (2008) 「뉴욕타임스 인용 보도 방식의 변천: 전달동사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6(1): 191-227.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London: Routledge.
-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69.
- Bassnett, Susan (2004) “What Exactly Did Saddam Say?” *The Linguist* 43(6): 176-78.
- Bielsa, Esperanca and Bassnett, Susan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Routledge.
-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Arnold.
- Gambier, Yves (2006)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News”, in Bassnett, Susan & Conway, Kyle (ed.)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The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McManus, John H. (2009) “The Commercialization of News”, in Karin Wahl-Jorgensen & Thomas Hanitzsch(ed.)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New York, NY: Routledge, 218-233.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Ohtsuka & Brewer (1992) “Discourse organization in the comprehension of temporal order in narrative texts.” *Discourse Processes* 15(3): 317-336.
- Pym, Anthony (2004) *The Moving Text - Localization, translation, and*

- distribu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Sommers, Margaret R. and Gloria D. Gibson (1994) "Reclaiming the Epistemological 'Other': Narrative and Social Constitution of Identity", in Graig Calhoun(ed.) *Social Theory and Politics and Identity*, Oxford and Cambridge MA: Balackwell, 37-99.
- Van Dijk, T. A. (1995) "Discourse semantics and ideology", *Discourse & Society* 6(2): 243-289.
- (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London: Sage.

〈첨부 1〉 ST, TT, 표제, 출처, 날짜, 부표제, 리드

	표제	부표제	리드
ST1	Negotiators Extend Deadline for South Korea Trade Pact 2007-03-31		
TT1	“FTA연장, 美 협상타결 의지 크다”-NYT 2007-03-31 머니투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다음달 2일 오전 1시(한 국시간)로 이를 연장된 것에 대 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부시 정부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다 고 분석했다.
ST2	A Good, if Not Great, Deal 2007-07-11		
TT2	NYT,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촉구” 2007-07-12 연합뉴스		뉴욕타임스가 11일 한국과 미국 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ST3	An Anger in Korea Over More Than Beef 2008-06-12		
TT3	“춧불 분노, 한국인의 민족 적 자존심 때문” 2008-06-13 노컷뉴스		
TT3'	“불공정 합의로 한국인 자 존심 상처” NYT 2008-06-14 파이낸셜뉴스	뉴욕타임즈(NYT)...이들 연속 대대적으로 보도, 상세한 분석기사 실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춧불집회가 계속되자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와 이명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연 일 보도하고 있다.
ST4	When a Populist Stance Meets a Complex Issue 2008-06-15		

TT4	NYT “쇠고기,자동차 문제 오바마 주장처럼 간단치 않아” 2008-06-15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외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과 특히 한국을 예로 들어 비판하지만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현실은 그의 주장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ST5	U.S. Nears a Crossroads on Trade 2010-03-10		
TT5	오바마 “한국 등과 무역협 정 진전시킬 것” 2010-03-11 세계일보	NYT “美 상원서 한미 FTA 비준 모멘텀 징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청신호를 보내면서 미 상원이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조성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ST6	Exporting Our Way to Stability 2010-11-05		
TT6	오바마 “車 업계 이익 해 결” 2010-11-07 한국일보	NYT 기고서 “방한기간 FTA타결 집중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방한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7	South Korea Is a Start 2010-11-07		
TT7	NYT “韓, FTA 자동차 관 련 투명성 이행 필요” 2010-11-09 노컷뉴스	한.미 FTA의 상징적 가 치 중요…“오바마, 민주 당-노조 설득해야”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자동차와 쇠고기 협상에서 보다 투명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8	Congress Ends 5-Year Standoff on Trade Deals in Rare Accord 2011- 10-12		

TT8	“FTA, 美 입장에선 정치적 성과가 더 중요” - NYT 2011- 10- 13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득 보다는 정치적 성과가 더욱 중 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	---	--	--

[Abstract]

**Public Narratives and Their Impact on News Translation:
A Case Study on Korea-U.S. FTA News**

Kim, Gi 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ranslators do not take neutral position in translating foreign language news because they are embedded in the 'public narratives' held by the society or the country which they belong to. Public narratives surrounding political or military confrontations could be extremely varied depending on the positions they tak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s a pertinent example of a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who are divided ov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n pursuing their future economic interest. The examination of Korea-U.S. FTA news translations in this paper reveals how the news texts are adopted and manipulated in accordance with public narratives of Korean society. Adopting 'localization' to explain various strategies used in news translation is relatively new methodology. The prerequisite required here is that news is commercial product of media companies. Compared with 'domestication' and 'trans-editing', localization puts more weight on distribution and accommodation. Foreign news pertinently adopted and manip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narratives of target society would have better chance to be broadly consumed.

▶ Key Words: news translation, manipulation, public narrative, frame, news localization.

김기영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대우강사

trangic@pusna.ac.kr

관심분야: 번역과 이데올로기, 개작, 조작, 번역자 정체성, 미디어 번역, 비언어
적 소통의 번역

논문투고일: 2013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